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6~5/12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2	요가 디피카	현천스님	선요가
3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출판
4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청우당
5	부처님을 만나다 : 빠알리성전을 통해 본 부처님 일생	비구일창 담마간다	불방일
6	읽기만 해도 보리심이 샘 솟는 원빈스님의 천수경	원빈스님	이층버스
7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자식의 코신 사랑	김원수	청우당
8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선원
9	꽃을 사랑 한다	현진스님 산문집	모과나무
10	보현행원 염불성불	정공스님/허만항	비움과소통

책세상

범자본에서 바로 옮긴 〈반야심경〉



실담범자반야심경
悉曇梵字般若心經

실담범자반야심경
도봉법헌 편저/ 학자원 펴냄/ 2만5천원

실담자 범본 모본으로 번역 해설
현장 한역본과는 다른 번역 보여
범자본 번역 〈반야심경〉은 최초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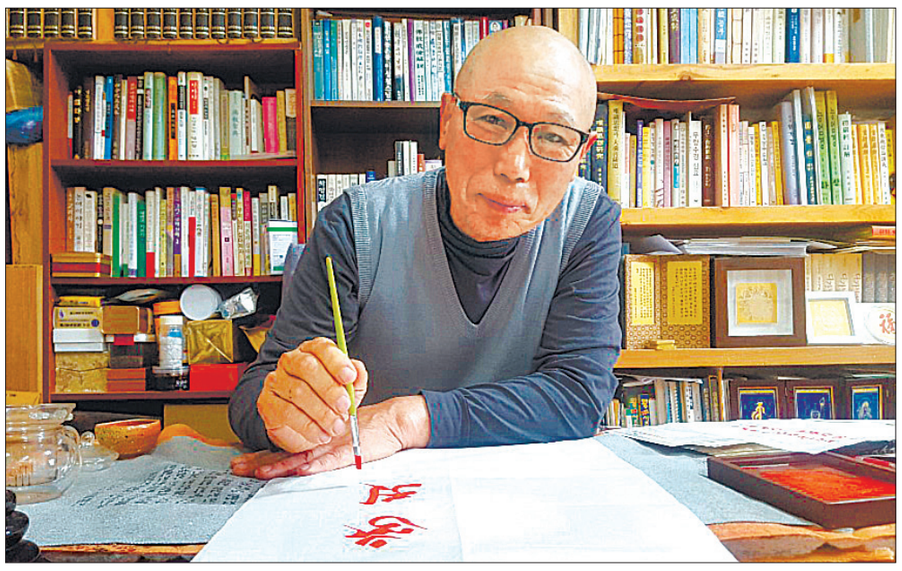
"완전한 지혜를 완성한 마음의 핵심경전, 일체 지자에게 귀의합니다. 성관자재보살이 심오한 완전한 완성된 지혜로서 실천할 때 다섯 가지 쌓임 등에는 자성이 다 공함을 간파하였다. 샤리쁘뜨라여! 실로 여기에는 물질은 공의 상태이며, 공의 상태는 물질인 것이다. …"

범자본을 번역한 〈반야심경〉이 출간됐다. 도봉법헌 스님의 〈실담범자반야심경〉이다. 우리가 읽어왔던 〈반야심경〉의 모본은 범자본을 번역한 한역본이다. 불교경전의 범자본들은 중국에서 번역된 뒤 정책적으로 분서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진 많은 경전들은 번역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변형 내지는 왜곡에 대한 의심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반야심경〉의 경우 범자본이 남아있어 '번역의 번역'에서 오는 의심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출간된 도봉법헌 스님의 〈실담범자반야심경〉은 실담자(悉曇字)의 범어본을 옮긴 것이다.

범어실담자(梵語悉曇字)란 인도의 굽타문자 계열에 속하는 문자로서 기원전 2세기경에 아쇼카 부라흐미문자가 기원이 되어 오늘날 인도의 여러 문자들이 만들어지는 근원이 됐다. 범어란 범천이 내려주는 말이라 하고, 실담자는 인도의 불교경전들이 중국에 전래되면서 정착된 문자로 '완성되다' 혹은 '성취되다'의 의미를 갖는다.

실담범자 〈반야심경〉은 일본 법륭사에 보관된 패엽본(609년)을 원본으로 하여 8세기 후반부터 6종의 사서(寫書)본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책은 그 중에서 고타마 기류와 시즈카 젠의 〈반야심경〉을 참조했다.

〈반야심경〉의 실담범자 소본의 원명은 '쁘라즈냐 빠라미따 흐리다야 수뜨라'이다. 이번 번역을 통해 실담범자의 원본과 현장법사가 번역한 〈반야심경〉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로 중복된 부분과 부정사를 해석하지 않은 것, 어떤 문장에서는 뜻이 전혀 다르게 해석된 부분도 있음을 볼 수 있다. 저자는 이번 번역에서 발견된 차이점들을 별도로 선별해 독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세히 발췌했다.



저자 도봉법헌 스님이 범자로 〈반야심경〉을 쓰고 있다.

대승불교의 반야사상 핵심을 담은 〈반야심경〉은 반야 600부 가운데 최상의 심심미묘한 경전이다. 글자 수는 비록 260여 자에 불과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의 진수이다. 지혜의 힘으로 중생계를 벗어나 불경계로 들어가는 '지혜의 핵심 가르침'이다. 그 핵심은 제법공상(諸法空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법은 고유하고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것이며, 그러므로 반야사상은 공, 무자성, 연기를 설하는 대표적인 대승의 반야경전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지는데, 1부에서는 반야심경을 설하여 일체의 공에도 머물지 말아야 하는 필경공(畢竟空)을 설하고, 진공묘유(眞空妙有)를 알 수 있도록 설해져 있으며, 반야의 지혜와 실천도 얻을 것이 없다고 하면서 1부를 마친다. 2부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의 신비로움과 비밀스러운 음성과 음가로 전해진 진언(眞言, mantra)을 음가로 독송 및 암송함으로써 수행자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으로, 밀교경전에 속한다 할 수 있다.

이 경전에서 갈파한 '반야바라밀다'나 '공(空)'은 각자의 참된 마음이다. 걸림 없는 마음, 공포가 없는 마음, 교만하지 않는 마음, 영원히 맑고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마음이며 부정을 겪어 그것을 넘어선 긍정의 마음이다. 여기서 해탈이 유래됨을 가르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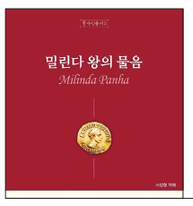
그 동안 국내에서 출판된 〈반야심경〉을 보면 실담자를 한역하여 우리말로 해석한 책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산스크리트어로 번역된 해석서도 종종 볼 수 있었고, 막스 뮐러가 일본 법륭사 범본의 사본과 중국 범자사본을 비교하고 대본 및 소본의 교정본을 영역하여 출간한 서적은 있었다. 하지만 범어실담자의 원문을 우리말로 해석한 〈반야심경〉은 없었다.

판본(版本)으로는 고려대장경의 반야부에 있는 것이 대표적이며, 번역된 것으로는 1463년(세조 9)에 한계희(韓繼禧) 등이 왕명에 의해 번역하여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간행한 〈반야바라밀다심경언해(般若波羅蜜多心經諺解)〉 1권 1책이 널리 알려져 있다. 또 이 경전의 산스크리트어 원본은 대본과 소본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일본에 남아 있다.

평생 실담범자의 원류를 연구해온 저자 도봉법헌 스님은 순천 선암사에서 득도했으며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수료, 동국대학교 박물관대학원 수료, 태고종 중앙강원을 수료했다. 2010년에는 실담범자 진언, 다라니 연구회를 설립했으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실담범자 서화 전시회를 열었다. 실담범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사경집과 실담범자 광명진언 사경집을 출판했다.

현재 법륜사에서 진언집을 집필하고 있다.

그리스 왕과 인도 고승의 대화



밀린다 왕의 물음
서정형 역해/ 공감과 소통 펴냄/ 1만4천6백원

그리스 왕 밀린다와 인도 고승 나가세나의 주옥같은 대화를 모아놓은 〈밀린다팡하〉가 새로운 번역과 해설로 출간됐다. 신간 〈밀린다 왕의 물음〉은 〈밀린다팡하〉의 여러 번역본을 대조하여 한국어로 옮기고, 원 텍스트의 참뜻을 쉽게 풀어쓴 해설을 붙였다.

기원전 2세기경에 완성된 〈밀린다팡하〉는 문학적 향기가 짙은 불교 고전 중의 하나이며 인도 산문의 걸작 중 하나다. 〈밀린다팡하〉는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그 원본의 산실과 재편집, 훼손과 첨삭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원형을 복원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역해자)는 리스 데이비즈(T.W. Rhys Davids)가 빨리어 원본에서 영역한 〈The Debate of King Milinda〉를 기본 텍스트로 삼았고, 이를 요약 편집한 비구 페살라(Bhikhu Pesala)의 〈An Abridgement of the Milindapanha〉를 참조했다.

의미가 명확하지 않거나 모호한 부분은 한역본 〈자선비구경〉을 교차 검증했으며, 우리말 번역본의 내용을 대조했다. 특히 페살라의 영역본을 접하고 축약의 필요성과 편의성에 공감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비유나 부연설명을 간소하게 줄였다. 주제별로 재편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밀린다팡하〉다.

주목할 만한 것은 원 텍스트의 뼈대와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주제별로 묶어 새롭게 편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화된 시각과 접근법은 기존에 출간됐던 동서양의 여러 〈밀린다팡하〉 번역본과 차별되는 부분이다.

책은 크게 '1부 대론(對論)', '2부 딜레마'로 구성됐으며 권말에는 '해설'과 '부록'을 첨부했다.

'1부 대론'은 밀린다 왕과 나가세나의 대론이 있은 후 100년 후에 기록된 구본의 내용이다. 1. 무아, 2. 윤회, 3. 업, 4. 마음, 5. 수행, 6. 열반, 7. 붓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일곱 개의 범주는 모두 〈밀린다팡하〉와 불교 교학을 관통하는 주요 교리이다.

'2부 딜레마'는 후세에 덧붙여진 신본이다. 서로 충돌하는 교설에 대한 해명을 추구하는 대화법인 '양도논법(딜레마)' 중 핵심 논지만 정리하여 번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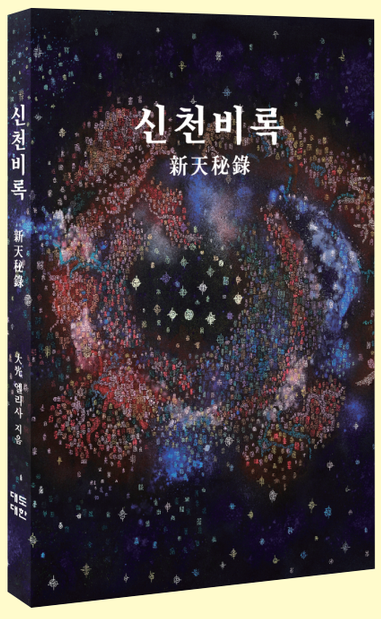
'해설'에서는 밀린다 왕과 나가세나의 대화 가운데 철학적으로 중요한 주제들(무아, 업, 윤회, 열반)에 대해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부록'에는 저자가 오래전에 쓴 소논문을 실었다. 이 논문은 이 책의 주요 주제인 무아, 윤회, 열반 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유와 통찰의 글로서 독자들에게 보다 심층적인 사유의 틀을 제시한다. 본문과 연계시켜 읽으면 보다 깊은 이해와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밀린다팡하〉는 밀린다 왕이 질문하고 나가세나가 그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주제에 대한 체계적인 물음의 연속이 아니라 단답형의 질문과 답변으로 짜여있다는 특성이 있다. 응집된 답변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제대로 읽어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고, 때문에 오독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책은 원 텍스트의 흐름을 충실히 따라가면서도 도움말과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목마다 '요주(腰註)'를 첨부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박재완 기자

신천비록 新天秘錄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열어줄, 새 하늘 비밀의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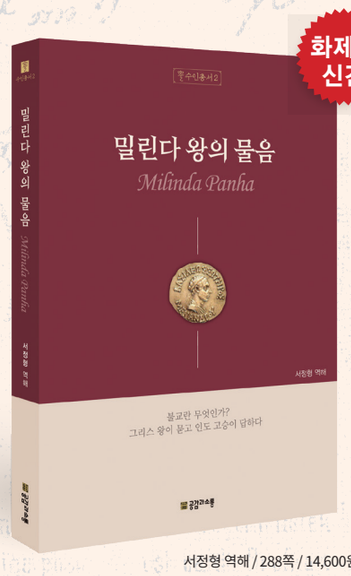


처음 하늘이 열린 태천부터
암흑기인 선천의 시대를 지나,
지금 새로운 후천시대에 이르기까지
대우주 하늘의 역사를 밝히고,
사후세계, 사람의 운명,
후천의 신앙과 도, 이기는 자,
천년왕국의 비밀을 알리다.

대광 엘리사 지음 / 도서 정가 15,000원
도서구입 문의 (도서출판 대도대한 : 063-643-7285)

인터넷서점(교보문고 / 영풍문고 / 반디앤루니스 / 알라딘 / 예스24) 교보문고 각 지점, 영풍문고 각 지점, 반디앤루니스 각 지점, 리브로 각 지점 서울종로)대원서적, 서울은평)불광문고, 서울서대문)홍익문고, 서울강서)행복한글간, 구리)동원서적, 수원)녹산문고, 수원)율전문고, 원주)동아서관, 춘천)춘천문고 춘천)광장서적, 천안)열린문고, 충주)문학사, 청주)홍문당, 대전)보문불교, 대전)계룡문고, 대전)중앙출판, 대구)세원출판, 대구)에스디커뮤니, 울산)처용서림 부산)영광도서, 부산)목민서관, 구미)춘양당, 안동)교학사, 창원)창원서적, 김해)가야서점, 마산)대신서점, 진주)진주문고, 광주)충장서림, 전주)홍지서림, 전주)웅진서적, 전주)민중서관, 군산)군일서점, 익산)대한서림, 순천)중앙서점, 목포)국제서림, 제주)탐라도서 등 전국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

"불교란 무엇인가?
그리스 왕이 묻고 인도 고승이 답하다!"



서정형 역해 / 288쪽 / 14,600원

밀린다 왕의 물음

알렉산더의 후예인 그리스 왕 밀린다와
불교에 정통한 인도 고승 나가세나의 주옥 같은 대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유려한 우리말로 풀어쓴
〈밀린다팡하〉역해서!

이 책은 불교에 회의적인 서구인들이 내게 묻는 대부분의 질문들에 답하고 있다.
– 비구 페살라(Bhikhu Pesala)

〈밀린다 왕의 물음〉이 인도 산문의 위대한 걸작 중의 하나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문학적 견지에서도 어느 나라의 어떤 책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 리스 데이비즈(T. W. Rhys Davids)


나가세나

밀린다 왕 : 사람의 지혜는 어디에 머뭅니까?
나가세나 : 머무는 데가 없습니다.
밀린다 왕 : 그렇다면 지혜라는 건 없군요.
나가세나 : 바람은 어디에 머뭅니까?
밀린다 왕 : 머무는 데가 없습니다.
나가세나 : 그럼 바람은 없습니까?

서정형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에서 20여 년 불교와 철학개론을 강의했고,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다.

공감과소통 전화 031-942-9472